

제4회 근대서지학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공동 학술대회

일시 : 2015년 2월 6일 (금) 13:00~18:00

장소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회관(인사동 9길 7) 2층

주최 : 근대서지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인문한국사업단)

후원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인문한국사업단), 소명출판

식민지 시기의 출판 자본과 출판문화

— 근대 출판과 <판매도서목록>의 문화사

근대서지학회가 창립 여섯 해를 맞이했고, 『근대서지』가 안팎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제10호를 돌파했습니다. 근대서지학회는 근대문헌을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문학과 출판문화사를 다양하게 재평가하는 데에 한몫을 맡아 왔다고 자부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과 함께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점과 출판사를 통해 제작, 유통된 <판매도서목록>을 문화사적으로 조망하여 식민지 시기의 출판 실태와 문제성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근대서지학회 회원 및 학계 안팎의 여러분이 두루 참석하셔서 귀중한 조언과 비판을 나누어 주시기 기대합니다.

<개회사> 13:00

— 근대서지학회 전경수 회장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기형 부원장

<특별 발표> 13:30~14:00

-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 서양인들의 한국학 색인과 일제 강점기 도서목록

진행 및 사회 : 권두연 (성균관대)

<제1부> 14:00~15:00

- 유석환 (방송대) : 판매도서목록의 책 분류와 근대문학의 위상
- 한기형 (성균관대) : 식민지 출판 활동에서 ‘전통’ 자료의 비중
 - 출판 목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제2부> 15:30~17:00

- 유춘동 (선문대) : 구활자본 고소설 출판사별 판권지의 광고와 도서목록의 실태
- 김성연 (연세대) : 식민지 시기 기독교 출판 자본과 책의 유통
- 장문석 (서울대) : 인문사의 출판 활동과 『조선문예연감』

<제3부> 17:10~18:00

- 자유 토론 : 사회 박진영 (연세대)
- 기타 행사 : 근대서지학회 정기 총회 및 『근대서지』 제10호 안내